

2021 대한민국 헌혈공모전  
동화 부문 대상 수상작

# 바늘을 타고 오는 멋쟁이들

김서현

어린이집에서 오자마자 서연이는 바빠요.

“엄마 제 색연필 어디 있어요?”

“색연필? 책상 서랍에 있을 것 같은데~ 색연필이 필요하니?”

“네! 내일 민서랑 그림 그리기로 했어요!”

“내일도 민서랑 같이 놀고 서연이는 좋겠구나~”

그림 그리는데 필요한 색연필이랑 스케치북을 챙겨놓으니 잠이 안 와요.

더 빨리 내일이 와서 놀았으면 좋겠어요~

[다음날, 어린이집]

그런데 점심 밥 먹을 시간이 되어도 어린이집에 민서가 오지 않았어요.

이제까지 안 온 적이 없던 친구인데...왜 안 오지? 늦잠을 잤나?

서연이는 궁금해서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선생님 민서 왜 안 와요? 오늘 저랑 놀기로 했는데...”

선생님이 먹고 싶던 아이스크림을 못 먹었을 때처럼 아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어쩌지? 민서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어, 몇 밤 자야 만날 수 있을 거 같아”

“병원이에요?? 몇 밤이나 자야 해요??”

“글쎄. 그건 선생님도 잘 모르겠네..”

병원은 무서워요! 약도 맛없고 주사도 무섭고 마음껏 놀지도 못하고...

민서는 왜 병원에 갔을까요? 선생님도 잘 모를 정도로 병원에 오래 있어야 하는 걸까요?

[삼일 뒤, 서연이의 집]

한 밤만 자면 친구가 올 줄 알았는데 세 밤을 자도 친구가 안 왔어요... 왜 안 오는 걸까요? 서연이는 걱정이 됐어요.

“우리 딸이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무슨 일 있니?”

아빠가 서연이를 안으며 물어왔어요.

“아빠. 병원은 아픈 사람들이 가는 곳이지?”

“그럼. 아프면 치료를 받는 곳이지. 병원은 왜 궁금해졌니?”

“민서가 아파서 세 밤 짜 어린이집에 안 와요.. 같이 놀고 싶은데..”

“친구가 아파서 걱정됐구나...”

아빠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다 다시 말을 꺼내셨어요.

“그럼 아빠 엄마랑 같이 친구에게 도움을 주러 가볼까?”

“병원에 간 친구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럼. 그 친구 뿐만 아니라 아픈 아기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아픈 사람들은 우리가 도와줄 수 있지!”

“좋아요. 얼른 가요!”

아빠와 엄마는 웃으며 함께 밖에 나갈 준비를 했어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병원에 있는 아픈 사람들이 빨리 나올 수 있는 걸까요?

[헌혈의 집]

우리는 집 근처의 빨간 십자가가 그려진 곳으로 갔어요.

보통 십자가 표시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많이 봤는데...우리가 병원에 온 걸 까요?

“엄마. 여기는 병원이에요?”

“여기는 헌혈의 집이란다. 저 빨간 십자가 문양을 적십자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이 곳에서 헌혈을 하고 그 피를 필요한 아픈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단다.”

“헌혈이 뭐예요?”

“헌혈은 말이야. 엄마 아빠 몸의 건강한 피를 가져가서 피가 필요한 아픈 사람들에게 주는 거란다.”

“피는 어떻게 가져가고 또 주는 거예요?”

도대체 내 피를 어떻게 주는 걸까 하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무시무시한 바늘을 아빠의 팔에 놓으셨어요!!!

“으아! 바늘 무서워요ㅠㅠ”

서연이는 자기도 모르게 손으로 눈을 가렸어요.

“하하. 아빠랑 엄마는 괜찮아~ 물론 잠깐 따끔했지만, 괜찮단다.”

“정말요?”

“그럼~”

그때, 빨간 모자를 쓰고 눈이 동글동글한 귀여운 캐릭터가 다가왔어요.

“와~ 친구네 부모님은 대단하시다. 헌혈도 하시고. 정말 멋지시네!”

“어? 넌 누구니??”

“내 이름은 나눔이야! 헌혈의 마스코트란다~”

“안녕. 나눔아. 나는 서연이야~ 근데 넌 왜 이름이 나눔이야??”

“친구 부모님처럼 다른 사람을 생각해주는 아름다운 마음을 나누러 온 사람들을 응원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내 이름이 나눔이야~”

“아. 그렇구나~! 그런데 헌혈을 하는 게 대단한 거야?”

“그럼, 헌혈이란, 오직 건강한 사람만이 해 줄 수 있는 아주 멋진 일이지. 잠을 못자거나 밥을 못 먹었거나 특별한 약을 먹은 경우에는 할 수가 없어. 헌혈을 한다는 건 건강하다 라는 증거야.”

나눔이의 칭찬에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그럼 나도 할 수 있어?”

“마음은 아주 예쁘지만, 조금 더 크고 17번째 생일을 맞으면 할 수 있어~”

“왜 17번째 생일부터 가능해? 난 지금부터 하고 싶은데..”

“아픈 사람을 도와주는 건 좋지만, 헌혈자에게 무리를 주면서까지 헌혈을 하지 않기 위해서야. 친구는 헌혈에 관심이 많구나? 피에도 여러 친구들이 있다는 거 알고 있지?”

“피는 그냥 빨간 거 아니야?”

“피는 혈액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빨간 혈액만 있는 건 아니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혈액 속의 많은 친구들이 지금도 서연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기위해 노력하고 있단다. 자. 그럼 이제 나를 한번 따라와 볼래? 우리 몸 속의 친구들을 만나게 해줄게”

“좋아!”

[혈액 탐방]

서연이와 나눔이는 숲으로 왔어요. 숲에는 정말 많은 나무들과 나뭇잎들이 있었어요.

“여기는 어디야? 숲이네”

“여기는 폐라는 숲이야. 허파라고 하기도 하지.”

둥글고 빨간 친구들이 여기저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다들 등에 비눗방울 같은 것을 가지고 있네요!

“우리 저 친구들을 따라가 볼까? 저 친구들은 적혈구라는 친구들이야. 적이야 안녕~”

“오. 나눔아 오랜만이야! 옆에 있는 친구는 누구야?”

“친구가 헌혈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데리고 왔어.”

“안녕 나는 서연이야.”

“안녕. 서연아. 난 적혈구야, 적이라고 부르렴.”

“적이는 바빠 보이는 데 뭐 하고 있는 거야?”

“한번 숨을 크게 쉬어 볼래?”

“흐음!”

서연이는 숨을 크게 들이 쉬었어요. 그러자 숲 끝에 있던 동굴에서 동글동글한 비눗방울 같은 것들이 쏟아져 나오며 숲에 있는 나무들에 철썩 붙었어요!

“산소다!”

“자. 산소 들어왔어요! 빨리빨리~~”

“각자 정해진 곳으로 배송합시다!”

수많은 적이의 친구들이 나무에 붙은 비눗방울들을 등에 업고 작은 오솔길로 사라졌어요.

“적이야. 그 비눗방울은 뭐야?”

“이건 비눗방울이 아니라 산소라는 공기야! 우리 숨을 쉬면 들어오는 산소를 운반하는 거야. 우리 몸은 머리부터 발 끝까지 산소가 필요해서 우리가 산소를 운반하고 있어! 아까 서연이가 숨을 들이쉬어서 산소가 들어와서 윽기는 거야.”

적이가 산소를 끌어안자 더욱 빨강게 변했어요.

“와. 적아 너 밝은 빨강색깔이 됐어.”

“혈액이 빨강게 보이는 건 바로 나 때문에 그래~ 내가 산소를 안고 가면 지금처럼 밝은 빨강이 되지. 나는 심장으로 갈 거야! 같이 갈래?”

“좋아 좋아!”

나눔이와 적이와 함께 심장을 향해 가고 있는 데 건너편 길에도 적이들이 있네요? 하지만 건너편의 친구들은 적이 보다는 훨씬 어둡고, 산소와 다른 모양의 공기를 가지고 가고 있었어요.

“적아. 건너편의 저 친구들도 산소를 윽기는 중이야?”

“오. 저 친구들은 각자 온 몸에 산소를 주고 산소 대신에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오는 친구들이야.”

“이산화탄소?”

“우리가 숨을 후~~~ 뱉을 때 나가는 게 바로 이산화탄소란다. 우리 몸은 일할 때는 산소가 필요해서 산소를 윽겨주면 나처럼 밝은 빨강이 되고 몸 밖으로 내보내 줘야하는 이산화탄소를 윽겨주면 저 친구들처럼 어두운 빨강이 된단다. 우리는 수시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날라주지!”

“내가 이렇게 숨쉴때 하는 동안에도 적이가 엄청 일을 하고 있는 거구나”

“맞아. 내가 없으면 숨 쉬는 게 힘들고 많이 어지러울 수 있어. 나는 우리 몸의 공기 우체부란다. 우체부 아저씨가 편지를 전달해주듯이 나는 공기를 배달해주지!”

“적이가 부족한 친구들은 어지러울 수 있는데, 헌혈을 통해서 건강한 적이를 다른 아픈 사람들에게 주게 되면 아픈 사람들 몸 속에서 적이가 또 열심히 공기 우체부 일을 해주는 거야”

“서연아 만나서 즐거웠어~ 나는 마저 공기를 배송하러 가볼게”

“적이야 항상 고마워~조심히 가~”

적이는 바쁜지, 적이와 똑같이 생긴 친구들 사이로 빠른 걸음으로 사라졌어요.

바로 그 때였어요.

“거기 세균 멈춰라!!!!”

“으아아! 도망치자”

“어딜 가! 세균! 너를 우리 몸을 아프게 하려했으니 체포한다!”

하얀 몸에 진한 눈썹이 인상적인 친구가 세균을 체포하고 있었어요.

“저건 백이잖아! 안녕 백아~”

“오. 나눔이 오랜만이야! 친구도 안녕? 나는 백혈구야. 백이라고 부르지.”

“안녕 백이야~”

“나는 몸에 있는 나쁜 세균들을 혼내주는 일을 하고 있어! 세균들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온갖 방법으로 몸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내 눈에 띄면 바로 체포하고 있단다.”

“백이는 경찰관이구나~”

“하하! 맞아. 나는 몸 속의 경찰관이지! 내가 부족해지면 세균을 체포하기 힘들어진단다.”

“백이가 많이 없는 사람들은 세균이랑 싸워 이기기가 힘들겠구나.”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이 헌혈을 하면 내가 아픈 사람들 몸 속의 경찰이 되어주지! 일종의 파견근무라고 할까. 하하!”

“백이! 저기에도 세균이 발견됐어!”

“어어어. 즐거웠어! 난 이만 출동해봐야겠어!”

백이는 엄청 바쁘게 다른 세균들을 혼내주러 가버렸어요

나눔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며 걷다가 서연이와 박스를 잔뜩 옮기고 있는 노란 나비 같이 생긴 친구가 부딪혔어요.

“아이쿠!”

“아앗! 미안해. 다치지 않았니?”

“응응 다치지 않았어. 너는 괜찮니?”

“응. 나도 괜찮아. 내 이름은 짱이야. 혈장이지. 옮겨야 할 게 많아서 미처 못봤어.”

짱이는 정말 많고 다양한 박스를 끌고 가고 있었어요. 마치 산타할아버지의 수레 같았어요.

“짱이는 택배배달원이야? 정말 많은 박스를 옮기고 있네?”

“맞아. 나는 택배배달을 맡고 있어! 박스에 뭐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몰래?”

짱이는 박스를 하나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동그란 상자, 하트모양 상자, 별 모양 상자 등등 엄청 많았어요.

“이 상자에는 영양소가 들어있어. 우리가 먹었던 음식을 영양소로 만들어 움직일 수 있게 하지. 건전지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

“짱이야. 그럼 이 많은 상자 모두 다 영양소야?”

“물론 영양소도 있지만 그거 말고도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난로도 있고 화장실에 보내야 하는 것도 있고 엄청 다양하고 많아”

“와 짱이는 정말 중요하고 많은 걸 옮기는구나”

“맞아 이 영양소도 바로 저 앞에 있는 무릎 가져다 줘야 해”

짱이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무릎 쪽으로 가고 있을 때였어요.

‘광!!’ 소리와 함께 잠깐 휘청거렸어요.

“아 깜짝이야. 나눔아 이게 무슨 일이야”

“어후. 놀랐지?? 아마 넘어진 것 같은데?”

갑자기 모두의 속도가 빨라졌어요. 마치 바람이 강하게 부는 것 같아요.

“으아아! 밀지마!”

“저기 지금 혈관 도로에 구멍이 뚫렸어!!”

“으아! 떨어진다!!”

빠른 속도로 인해 어느 새 짱이는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나눔아 무서워..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괜찮아. 119대원들이 곧 올 거야!”

나눔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뽀용뽀용-소리가 들렸어요. 사이렌을 울리고 초록색의 뽀족뽀족한 친구들이 현장으로 무섭게 달려갔어요.

“자 다들 버터! 솔이가 왔다!”

“솔이야 도와줘!”

“자 내가 던진 밧줄을 잡아!”

솔이가 던진 밧줄을 적어도 백이도 짱이도 너도 나도 잡았어요.

“이히히~~~ 혈관 도로에 구멍이 나있으나 몸 속에 들어오기 쉽구나.”

“새치기 하지마! 내가 먼저 들어갈거야!”

“어디를 아프게 해볼까~”

혈관 도로 구멍 틈으로 나쁜 세균들이 스멀스멀 기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렇게는 안 되지! 솔아. 내가 세균들을 상대 할 테니 그 틈에 빨리 구멍을 막아줘”

“좋아. 모든 대원 백이가 세균들과 싸우는 동안 저 혈관 도로에 구멍을 막는다!”

“실시! 다들 구멍을 막는다!”

모두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였어요. 백이는 나쁜 세균들을 처리하고 솔이는 끈끈한 그물망을 가지고 와서 혈관 도로의 구멍을 막기 시작했어요. 빠르고 신속한 협동에 혈관 구멍이 막히고 더 이상 세균들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 임시도로가 생겼습니다. 모두 다시 일합시다!”

“너무 늦어졌어! 다들 또 힘내서 하자고”

“다시 줄 서요~~”

적이와 짱이도 언제 놀랬냐는 듯 다시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와. 정말 대단하다...”

“서연아 저 임시도로라고 하는 갈색의 딱딱한 것 보이지?”

“응응 저게 뭐야?”

“저건 바로 우리가 흔히 아는 피딱지야”

솔이가 이야기 하며 다가왔어요.

“안녕? 나는 혈소판이야. 솔이라고 부르지! 혹시 넘어지거나 다쳐서 피가 난 적 있지?”

“응응. 하지만 금방 피가 멈춰서. 그리고 딱딱한 게 생긴 적 있어.”

“맞아. 그 딱딱한 것이 우리가 만든 피딱지 때문에 멈춘 거란다. 그래서 절대 손으로 피딱지를 뜯으면 안 돼. 그럼 아까처럼 피 나고 세균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단다.”

“그래서 엄마아빠가 뜯지 말고 내버려 두라고 했구나.”

“많이 놀랐겠다. 이제 임시도로가 생겨서 괜찮을 거야. 우리가 꾸준히 관리해서 다시 튼튼한 혈관 도로를 만들 거니까 너무 걱정 하지 않아도 돼”

“솔이 덕분에 피가 멈추고 새살이 돋을 때 까지 기다릴 수 있는 거구나. 솔이는 119대원 같다!”

“맞아. 내가 부족한 아픈 사람들은 피도 잘 안 멈추고 세균에게 위험할 수도 있어.”

“그러겠다. 솔이가 필요한 아픈 사람들도 있겠구나.”

서연이는 다시 열심히 일하는 적이, 백이, 짱이, 솔이 보았어요.

혈액 속에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이 없다면 건강한 나도 없겠지요?



“내 몸속에는 공기 우체부, 경찰관, 택배 배달원, 119대원.. 모두 다 중요하구나”

“서연이 네 말이 맞아. 모두가 중요하지. 하지만 적이, 백이, 짱이, 술이 모두 약으로 만들 수 없고, 오로지 사람의 몸만이 만들 수 있어. 그래서 헌혈이 정말 중요한 일이다. 건강한 저 친구들을 아픈 사람에게 지원을 가주는 거지!”

나눔이와 혈액 속 친구들을 만나니 헌혈이 얼마나 중요한지 서연이는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헌혈을 한 부모님이 멋져 보였어요.

“와. 우리 엄마 아빠 대단하다. 난 바늘이 정말 무서웠는데...그 잠깐을 참으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구나! 그럼 병원 간 내 친구도 다시 나랑 놀 수 있을까?”

“그럼. 엄마 아빠처럼 건강하고 멋진 헌혈자분들이 헌혈을 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혈액 탐방이 끝나고 헌혈의 집]

“혈액 속 친구들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니?”

부모님은 벌써 헌혈이 끝나고 서연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헌혈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지금은 헌혈을 못하지만 언젠가 나도 헌혈 할 수 있는 건강하고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럼 충분히 그런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지”

“엄마아빠가 자랑스러워요!”

“우리도 그런 멋진 생각을 한 네가 자랑스럽단다~”

몇 밤이 지나고 친구가 퇴원을 했어요.

다시 친구와 놀 수 있어서 좋아요! 헌혈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해요. 나중에 크면 저도 여러분과 같은 나누는 마음으로 헌혈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 될게요!